코스피 폭등에 광주·전남 예금은행 수신 2조 감소

작년 12월 한달에만 정기예금 2조7000억 빠져나가
머니무브 영향…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3000억 늘어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며 급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도 2조 가까이 감소했다.

자금이 증권사로 쏠리는 머니무브의 여파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분기 6376억원 증가했던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1조9438억원 대폭 감소했다.

예금은 지난해 3분기 1조1219억원 증가에서 4분기 1조692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는 정기예금에서 2조8539억원이 감소한 게 크게 작용했다.

특히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정기예금은 2조7315억원 감소하며 4분기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장성 수신은 금융채 등의 증가로 지난해 3분기 -4843억원에서 4분기 -2518억원으로 감소폭이 둔화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지난해 3분기 1조1492억원 증가에서 4분기 9273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회사(+3396억원→ -2885억원)와 상호저축은행(+3085억원 →-1602억원)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여신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금은행 여신은 전분기 대비(+1조707억원→+1조2553억원) 증가폭을 확대했다.

대기업 대출이 감소세를 소폭 키웠지만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 대출(+7008억원→ +9059억원)도 늘었다.

가계대출(-885억원→+3188억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업계는 증시 호조로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예금 수요가 줄고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5958억원→+4820억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 신용협동조합(+526억원→ -647억원)과 기타(+102억원→ -101억원)가 감소 전환됐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1000건 돌파

포용금융센터 2019년 개소 이후 현장 밀착형 지원 '호응'

광주은행은 포용금융센터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실적이 누적 1000건을 돌파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경기 불황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 포용금융센터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마케팅, 경영진단, 세무·법률 등 전문 분야, 점포 운영 등을 컨설팅하며 SNS 홍보 전략, 배달 플랫폼 활용 방안, 수익 구조 분석, 고객 서비스(CS)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매장 동선 설계, 재고 관리 등 현장 밀착형 상담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기관 포상을 수상했다.

컨설팅 지원은 경영 개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지원 상담과 연계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상생금융 실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반도체가 살렸다"…성장률 2.0%로 상향

한은, 수출·설비투자 개선에 전망치 0.2%p ↑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반도체 경기 활황세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0%로 상향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경제전망(2026년 2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망치 1.8%였던 올해 성장률을 0.2%p 높인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1.8%)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건설투자 급감에 -0.3%로 역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등에 힘입어 2.0% 성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0.05%p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반면 건설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했다가 지난해 5월 1.6%로 낮췄고, 11월 다시 1.8%로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0%)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각 1.9%)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2%나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

한은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1.8%, 설비투자 증가율을 2.4%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민간 소비는 0.1%p, 설비투자는 0.4%p씩 높아졌다.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1.4%에서 2.1%로 크게 높여 잡았고, 재화 수입도 2.4%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건설투자는 2.6%에서 1.0%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반영,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기존 1300억달러에서 17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의 1231억달러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내년 흑자 규모 전망치 역시 1200억달러에서 1400억달러로 높였다.

올해 취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17만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19만명)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간 고용 상황은 서비스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이번에 1.8%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연속 동결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최소 약 9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됐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만큼, 금통위로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뚜렷한 금리 인하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엄재용 기자

코스피, 6300선 돌파 또 '최고치'

삼성전자·SK하이닉스 7% 급등

전날 6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26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63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3.41p(3.67%) 오른 6307.27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날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상 처음 6000고지를 밟았는데 이날도 급등세를 지속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17p(0.61%) 오른 6121.03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에는 한때 6313.27까지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치(6144.71)를 재차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6611억원, 1조2426억원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2조1076억원 순매도를 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7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이날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도 상승폭을 키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7.13%)가 사상 처음 21만8000원에 마감하고 SK하이닉스도 7.96% 급등하며 110만원 목전에서 장을 마쳤다.

전날 급등한 현대차는 6.47% 오르며 사상 처음 60만원선을 넘었고, 기아도 5.05% 올라 20만6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시가총액 1조240억달러로 집계된 삼성전자의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에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2.90p(1.97%) 상승한 1188.1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0p(0.94%) 오른 1176.15로 출발해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한때 1190.85까지 올라 지난 2000년 8월 17일(1196.50)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황광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지역경제 현안 연구·유관기관 협력 강화"

신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으로 황광명 한은 전 북경사무소장(55·사진)이 27일 부임한다.

황 본부장은 장흥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경제통계국, 조사국, 금융통화위원회실, 경제연구원, 국제국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국립외교원과 광주시청 등에서도 파견 근무했으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황광명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전남도, 휴가지원 전국 최다…관광경제 회복

공모사업에 고흥·강진·해남·영암 등 6곳 선정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 실적을 거뒀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수요를 직접 끌어올리는 체류형 소비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고흥·강진·해남·영암·영광·완도 등 6개 시군이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순 방문이 아닌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는 구조다.

사업은 지자체별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7억원을 매칭해 총 1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 가맹점 매출 증대와 함께 체류일수 확대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반값여행' 정책을 정부가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이 먼저 실험한 정책 모델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된 셈이다.

전남도는 공모 과정에서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전략적으로 준비했다. 우수사례 공유와 사업 구조 보완을 병행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해양 특화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회성 방문을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지역 관광 정책의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체류 확대와 지역 소비 선순환을 정착시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찾아가는 캠퍼스 투자교육

한국투자증권, 전남대서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투자교육 프로그램 '한투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투 캠퍼스 투어'는 미래 경제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투자 관념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유스(Youth)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투자 환경에 최적화된 실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 전남대 프로그램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식 매매 기법과 차트 분석 기초, 퀀트 투자를 위한 오픈 API 활용법 등 실전 투자를 돕는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와 서포터즈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자본시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함께 소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